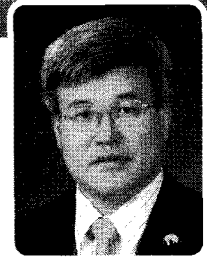


## 구제역 파동을 보면서



김 유 용

서울대학교 교수, 본회  
R&D위원

2010년 1월, 4월과 11월에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11월에 발생한 구제역이 해를 넘기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초기방역에 문제가 있었느니, 백신접종이 늦었느니 하는 결과론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책을 세워 예방을 해야지 이미 발생한 질병, 지나간 대책을 두고 잘잘못을 따지는 논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축산업의 경기는 몇 번의 부침은 있었지만,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호황이었다. 구체적으로 최근 축산농가들의 평균 사육규모는 급격히 증가하여 한우는 17여두, 젖소는 60여두, 돼지는 1,400여두에 이른다.

하지만 사육규모 및 매출액은 증가하였어도 농가들의 방역의식이나 시설은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2003년 이래로 네델란드 PTC+를 전학하고 온 국내 축산인들이 1,000명을 넘고 있다는데 그 많은 비용을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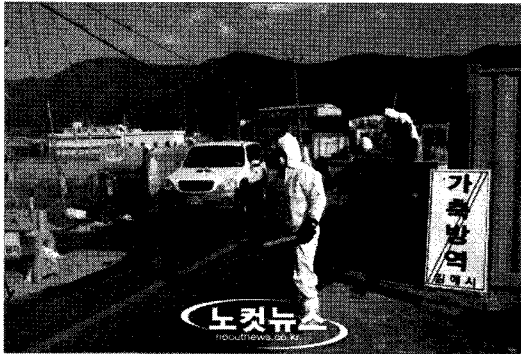
여 견학을 다녀온 후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자신의 농장에 적용했는지 답답한 심정이다.

구제역이란 질병이 구제역 바이러스가 동물체에 접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사실에 근거한다면 쉽게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 즉 방역대를 크게 국가, 지역, 농장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먼저 국가방역은 구제역 발생국을 여행한 사람들이 국가에서 정한 규정대로 귀국 후 5일 이내에 축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많은 축산농가들이 이 규정을 잘 지키지 않았던 것이 이번에 확실히 밝혀졌다.

두번째 방역대인 지역지역이라 함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권역을 나누어볼 때, 가능한 축산인들이나 축산업관련 종사자들이 권역을 넘나드는 것은 방역상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번에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당일 안동에서 충남 당진으로 이동한 축산컨설턴트 한 사람 때문에 당진에서는 2만여두의 돼지가 살처분을 당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외국에서도 각 지역별, 농장별로 할당된 수의사나 컨설턴트는 거리가 많이 떨어진 지역의 농장과는 사업적으로 연관이 되어있질 않다. 따라서 한 지역에서 질병이 발생하여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일이 없으므로 지역별 차단방역이 가능한 것이다. 이번 구제역을 계기로 사료회사들의 인력이나 차량들도 권역 별로 새로 배치하고 운영하는 사업계획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구제역이 발생하였던 영국의 예를 보더라도 구제역 이전에 많은 사료회사들이 전국



· (압해서 재공/자료사진)

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였지만, 지금은 영국 전역을 상대로 영업하는 사료회사는 BOCM Pauls와 ABN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사료회사들도 이번 기회에 회사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지역에만 특화하는 영업전략을 세우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고 생각된다.

세번째로 축산농가의 자체 차단방역인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이 이번 구제역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2003년 이래로 국내 축산경

기가 상당히 좋아서 많은 농가들의 소득수준과 농가의 사육규모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차단방역에 대한 인식이나 시설투자는 10, 20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여전히 우리나라에 축산전문가들이 농장 안으로 들어갈 때 방역복을 입고 비닐장화를 신는 것으로 방역조치를 하고, 차량이 농장 안으로 들어갈 때에도 차량을 소독하면 방역조치를 끝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같은 식의 방역은 전시행정식 방역이지 농장을 한 순간에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구제역 같은 국가재난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축산농가들이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농가의 문제는 결국은 농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농장 자체의 차단방역에 더욱 투자를 하고 차단방역을 생활화 하여야 한다. 우선 시급히 해야 하는 차단방역의 기본은 농장의 울타리를 쳐서 외부에서 애완동물이나 야생동물이 농장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그 이후에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들어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농장을 드나드는 사료차량은 농장의 울타리를 따라 사료빈에 사료를 공급하도록 하여 농장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하가축을 운송하는 출하차량도 농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농장밖에 출하대를 따로 설치하여 동물들을 농장 밖으로 몰고 나와서 외부에 설치된 출하대에서 출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축산전문가들이 이제는 정말 축산농가를 아무 때나 드나드는 행동은 이번 기회에 없어야겠다. 이번에도 그랬듯이 농가에서 질병이 발생하면 항상 질병의 원인으로 농장의 출입자가 대상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축산농가의 재정상태가 취약할 경우에는 구제역 같은 질병이 발생하면 그 농장은 주인이 바뀔 정도의 치명적인 사태가 발생하므로 책임감을 갖고 대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일부 사람들은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를 들면서 차단방역의 효과를 아직도 의심하는 경우를 본다. 유럽의 경우는 우리보다 인구밀도가 낮아서 농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이고, 미국이나 캐나다는 농장간 거리가 50~100km 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들이 시행하는 차단방역방법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또한 이들 나라들의 방역체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는 확연히 다르고, 차단방역에 대한 규정을 자세히 만들어놓고, 규정을 어길 경우 도축장에서 도축을 못하게까지 하는 법규를 만들어 놓아서 각 농장 별로 철저히 지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번 구제역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축산농가, 산업계, 학계가 축산의 시설, 환경, 사양, 육종, 사료, 수의 등 전반에 걸쳐 기본을 다시 점검하여 확실하게 개선하는 換骨奪胎하는 변화가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축산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축산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